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전북자치도교육청, 검진 희망 2060여명 대상… 10월 말까지 개별 방문 검진

올해 대상자 국립학교·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조례 제정으로 근거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도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근거로 2년마다 정기적인 폐암 검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검진 대상은 도내 모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중 검진을 희망한 급식종사자 2,060여명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모든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국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원아수 50인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검진을 희망한 급식종사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폐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저선량 흉부 CT' 촬영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 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정밀) 검진 및 필요시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2년 고용노동부 임시건강진단 통보에 따라 '급식종사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자'에 한해 폐암 검진을 지원했으나,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검진 대상을 전체 급식종사자로 확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폐암 검진 지원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부담이 많은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급식종사자를 포함한 현업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를 비롯한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4개 거점국립대학교 144명의 학생들(대학별 36명)은 지난달 27일 독도를 찾아 미리 준비한 플래시몹 행사 등을 통해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렸다.

거점국립대 학생들, 독도서 화합 외치다

전북대 등 144명 학생들, 독도 탐방… 플래시몹 통해 우리땅임을 알려

전북대를 비롯한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4개 거점국립대학교 144명의 학생들(대학별 36명)은 지난달 25일 '2024 나라사랑 독도사랑 국토탐방' 발대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 사랑 실천과 거점국립대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2019년까지 진행돼 오다가 2022년부터 재개돼 추진되고 있다.

첫날 울진에서 대학 간 기획행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진 탐방단은 26일 울릉도 생태탐방을 비롯해 안용복기념관과 독도기념수비대 방문 등을 통해 대학 간 우의를 다졌다. 이어 27일 독도땅을 밟아 미리 준비한 플래시몹 행사 등을 통해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렸다.

김종석 학생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거점국립대 간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학생들이 우리땅 독도에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타인과 화합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학생들은 이번 행사 전반을 동영상으로 담아 SNS 등을 통해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7월 1일자

전북자치도교육청, 5급 이상 승진 3명·전보 35명 등 총 38명

박성현

김형대

김정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 7월 1일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르면 승진 3명(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전보 35명(3급 1명, 5급 34명)등 총 38명이다.

먼저 행정국장에 박성현 서기관(현 익산교육문화회관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으며, 익산학생교육문화관장에 김형대 부이사관(현 행정국장)을 전보 발령했다.

또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에는 김정주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 전북교육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배우고 싶은 과목 더 많이 더 다양하게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은 7월 1~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6일까지 2024학년도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학기에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29개교에서 71개 강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9개교에서 16개 강좌를 각각 운영한다.

특히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등 실험?실습 중심의 과목과 정보 관련 전문교과 강좌가 개설돼 학생들에게 더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신청이 종료되면 전북교육청은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거점학교별 학생 선발 전형 및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 정원이 차지 않은 강좌에 대해서는 8월 9~20일까지 추가모집을 거쳐 8월 24일부터 2학기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3월 23일부터 1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학기 공동교육과정에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29개교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9개교에서 1,040여명의 학생들이 88개 강좌를 이수중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리공업고등학교는 지난달 27일 이차전지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차전지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이리공고, 엔켐과 산학협력

이리공업고등학교는 지난달 27일 이차전지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엔켐은 국내 1위, 세계 3위의 전해액 생산기업으로 2023년 연매출 4,249억을 달성했으며, 폴란드·헝가리·중국·인도네시아·미국 등 3대륙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이차전지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이차전지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졸업생 채용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엔켐 남용우 전무는 "배터리에 대해 높은 이해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면서 "이리공업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교장은 "엔켐과 협약을 맺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배터리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 현대경제연구원과 협약

국제협력 분야 전문성 강화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원장 문경연)이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원장 허용석)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산업, 교육 분야 연구 외에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ODA 사업발굴, 설계, 평가 등의 컨설팅과 및 ODA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4개 국가에서 21개의 사업을 수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자료와 보고서 등의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학술행사나 세미나 공동개최 및 참여, 그리고 각종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상호 자문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문경연 원장은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의 협력이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 학생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다양한 연구진과 국제협력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과의 긴밀한 협력은 양 기관의 ODA 사업 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선열들의 독립정신 영상으로

전북자치도교육청, 독립정신 계승 청소년 콘텐츠 대회 개최

도내 독립운동 유적지·시설 답사 후 느낀 소감 제작 응모

초등·중고·단체 등 3개 분야로 진행… 18세 미만 참여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5일까지 제2회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청소년 콘텐츠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로 열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내 18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북지역 독립운동 유적지 및 시설을 답사한 후 느낀 소감을 3분 이내의 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초등부·중고등부·단체부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누리집(http://www.jbkb815.or.kr)에서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메일(jbkb815@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분야별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장려상 10명 등 총 54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도내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전주시, 반려동물 분야 유망 창업기업 지원 경진대회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최근 전주시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유망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최근 반려동물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관련 창업기반의 사업화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5월부터 예비창업자에서 3년 이내 반려동물 산업 아이템을 보유한 18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해 반려동물 아이템 검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연계 멘토링을 통해 반려동물 아이템을 구체화했다.

또한 창업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판로 확대를 위한 전략도 수립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아이템이 우수한 3개팀을 선정, 총 3,500만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대회 1위는 '수의 영양학 설계를 적용한 기능성 수제 펫푸드 밀키트 개발' 아이템이 선정됐다. 또한 '수의사가 만든 천연 허브성분의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 제조' 아이템이 2위, '한우 부산물 저온발효 및 가공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식품 제조' 아이템이 3위를 차지했다. 수상팀은 사업화 지원금으로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3개팀 외에도 성적 우수팀(3~5팀)에 대해 추가로 라이브커머스와 숏폼 영상 제작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정민 창업지원단장은 "지역의 새로운 트렌드 산업에 맞춰 도약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에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리 배우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비즈니스 능력 향상 교육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달 27일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직장생활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달 27일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직장생활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직장 예절과 다양한 조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입사원 비즈니스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성공과 신뢰를 쌓는 비즈니스 매너 스킬 △직장생활 출근부터 퇴근까지(인사, 전화 응대, 이메일, SNS 매너) △직장생활 백서(상호 존중하는 직장 내 대화 예절) △직장 내 상황별 A to Z(사례 연출 및 매너 실행력을 위한 실습) 등으로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수 직장예절과 직무기술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일 경험(하계 현장실습 등)을 앞둔 학생들에게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조직 내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함으로써 전문 직업인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숙경 센터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조직 적응과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산업현장과 연계한 일 경험을 확대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